중국계 은행: 최초의 해협 중국계 은행에서 OCBC까지

Dr Alexander Ressos, TEP
Attorney-at-Law (Switzerland and Germany),
Solicitor (England & Wales and Hong Kong)
Of Counsel, KGP Legal LLC
alexander.ressos@kgplegal.com.sg
www.ressos.com.sg

19세기 대부분의 기간 동안 싱가포르의 중국계 상인들에게는 자신들의 은행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유럽계 에이전시 하우스가 제공하는 신용으로 거래하였고, 매판을 통해 환은행에서, 그리고 체티아르(Chettiar) 대금업자에게서 자금을 빌렸습니다. 이들의 저축은 송금업체를 통해 고향인 중국으로 보내졌습니다. 20세기 첫 30년 동안 이러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중국계 상인들은 식민지 회사법에 따라 설립되고 부분적으로 서구식으로 경영되며, 주로 하나의 방언 집단 구성원들이 소유하고 이용하는 일련의 예금은행을 세웠습니다. 30년이 채 지나지 않아 그중 가장 중요한 은행들이 합병하여 화교은행(Oversea-Chinese Banking Corporation)이 되었습니다. 이 은행은 오늘날에도 국내 시장을 지배하는 싱가포르 3대 은행 중 하나입니다.

이 장은 그러한 발전 과정을 추적합니다. 먼저 최초의 중국계 은행들과 그중 가장 오래된 광익은행(Kwong Yik Bank)의 파산을 다룹니다. 1913년 이 은행의 붕괴는 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최초의 식민지 규정을 낳았습니다. 이어서 중국계 은행업이 복건(Hokkien), 조주(Teochew), 광동(Cantonese) 방언 집단별로 나뉜 양상을 살펴보고, 고무 경제의 호황과 불황을 거쳐 1932년 합병에 이르기까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지 복건계 은행들의 행보를 따라갑니다. 다음 두 절에서는 중국계 은행과 중국 사이의 유대, 그리고 공동체 기관으로서 은행의 역할을 고찰합니다. 이 장은 이 역사가 오늘날의 은행가와 자문가에게 주는 교훈, 그리고 제네바와의 비교로 마무리됩니다.

이 비교가 유익한 이유는 두 금융 중심지가 같은 시기에 같은 세계 위기를 겪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리즈의 제네바 편인 *Genève, place financière internationale*의 제D편은 1931년 위기로 제네바 은행(Banque de Genève)이 무너지고, 1934년 스위스 할인은행(Banque d'Escompte Suisse)이 파산하였으며, 같은 해 연방 은행법이 제정된 과정을 서술합니다. 싱가포르의 중국계 은행들은 중앙은행도, 예금보장제도도, 은행법도 없는 상황에서 공동체 지도자들 간의 협상을 통한 민간 합병으로 불황에 대응하였습니다. 두 대응 방식은 각 금융 중심지의 제도적 성격을 잘 보여 줍니다. 그 차이는 제E편에서 살펴볼 규제 문화에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핵심 요약

1903년 광동계 상인들이 설립한 광익은행은 싱가포르와 영국령 말라야 최초의 현지 은행이었습니다. 1913년 이 은행이 붕괴하자 1914년 회사(개정)조례(Companies (Amendment) Ordinance)가 제정되었고, 이 조례는 이사에 대한 무담보 대출을 제한하고 회계감사와 영문 재무제표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중국계 은행업은 방언 집단별로 발전하였습니다. 사해통은행(Sze Hai Tong, 1906년)은 조주계 공동체를, 이화은행(Lee Wah, 1920년)은 광동계 공동체를 위해 영업하였고, 화상은행(Chinese Commercial Bank, 1912년), 화풍은행(Ho Hong Bank, 1917년), 화교은행(Oversea-Chinese Bank, 1919년)은 고무·해운·무역에 뿌리를 둔 복건계 기관이었습니다. 대공황, 1931년 9월 파운드 스털링의 금본위제 이탈, 그리고 탄카키(Tan Kah Kee)에 대한 과도한 대출로 인해 세 복건계 은행은 1932년 화교은행(Oversea-Chinese Banking Corporation, OCBC)으로 합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통화위원회 제도 아래에서 중국계 은행들에는 최종대부자가 없었기 때문에 예금의 약 절반을 유동성 자산으로 보유하였고, 공동체의 지도자이기도 했던 설립자들의 명성에 의존하였습니다.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Disclaimer

This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It is based on publicly available sources as at its date of publication. These sources have not been independently verified against licences, regulatory registers or the records of the entities concerned. It is not legal, tax, financial or investment advice. Nor is it a recommendation to invest in, transact with or use the services of any entity mentioned. Law and regulation change frequently, so the content may be incomplete or outdated. To the fullest extent permitted by law, Dr Alexander Ressos and the publisher of SingaporeIQ exclude all liability for loss or damage arising from the use of or reliance on this article. Readers should obtain advice on their specific circumstances before acting or refraining from action.

Names and trademarks of the entities discussed belong to their owners and are used for identification only. Their mention implies no endorsement, affiliation or allegation of wrongdoing.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Corrections and updates: contact@ressos.com.

© 2026 Dr Alexander Ressos. This article may be quoted with attribution to SingaporeIQ (SingaporeIQ.com). Reproduction in full and any commercial use require prior written consent. The Legal Terms at https://singaporeiq.com/legal-terms apply.

Author contact: Dr Alexander Ressos, TEP · contact@ressos.com